

라 페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항해와 우리 나라 근해에서의 해양조사활동

韓 相 復
韓國海洋科學 研究室

La Pérouse's Voyage Round the World and His Survey in Korean Waters

Hahn Sangbok

Research Group,
Korea Ocean Science and Engineering

ABSTRACT

French government made decision of scientific voyage round the world to improve the knowledge of physical geography and science of the ocean for four years, 1785-1789.

La Pérouse was nominated as the commander of this voyage and he set sail from Brest on August 1, 1785 with frigates Boussole and Astrolabe. However, he and all his members were disappeared from Botany Bay, Australia in 1788.

He made scientific survey in south-eastern part of Korean waters in May 1787, perhaps the first scientific work in this region ever made. He also introduced Ullnung-Do to Europe for the first time as the name of Isle Dagelet.

1. 머릿말

라 페루즈(La Pérouse)의 세계일주 탐사활동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31년 2월, 당시의京城帝國大學 교수 田保橋潔이 「靑久學叢」 제 3 호에 “鬱陵島その 発見と 領有”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¹⁾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田保橋潔의 발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면 그의 논문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라 페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활동이 어떤 상황에서 계획되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라 페루즈의 탐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첫번째 이유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나라 연안 해양조사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필자가 우리나라의 해양학사 자료를 10여년간 모아 오고 있는데 라 페루즈 이전에 우리나라의 바다가 조사되었다는 기록은 아직 찾아 내지 못했으며 다만 세칭 「하멜 표류기」가 1668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어 우리나라를 서양세계에 소개했을 따름이다.

하멜 일행은 대만에서 일본의 나가사끼로 가던 중 불행히도 태풍을 만나 1653년 8월 제주도에

1) 田保橋潔, “鬱陵島 その発見と 領有,” 「靑丘學叢」, 第3號, 1931, pp.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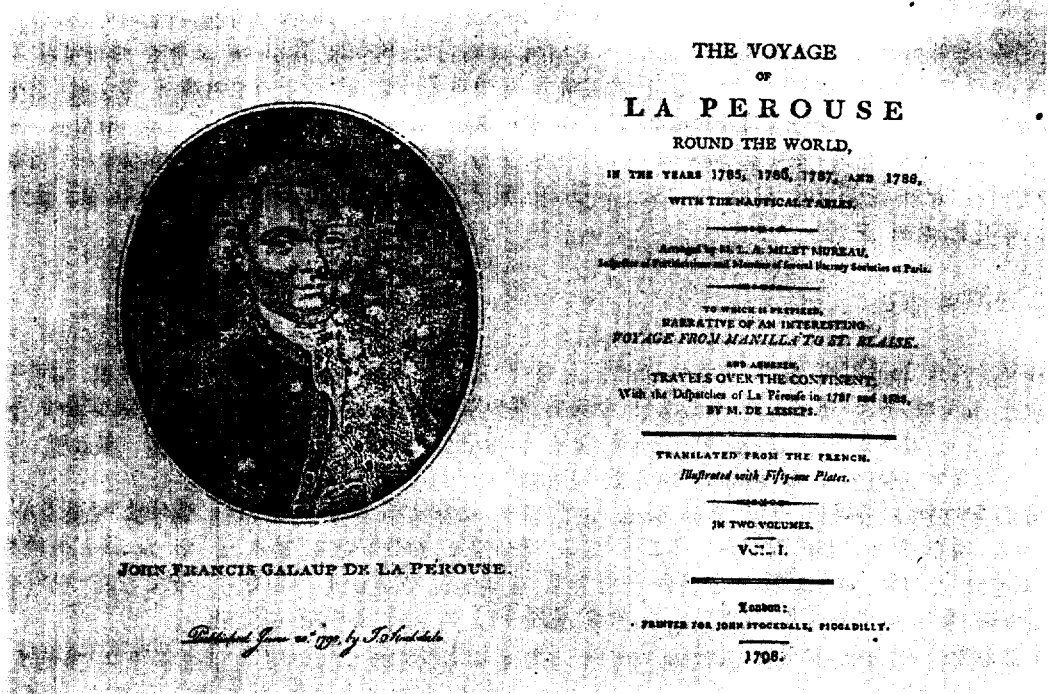


그림 1. 라 페루즈의 초상과 그의 항해기 표지(영문판, 1798)

표착한 이래 13년 동안 억류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소박하게 묘사한 것이 「하멜 표류기」이다. 이 조그만 책자는 우리나라를 서양세계에 소개하는 유일한 안내서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으며 당시의 지도 제작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의 모양을 반도로 확정시키고 또 제주도의 이름을 켈파트(Quelpaert)로 확정시켰다.²⁾

두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근세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해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역사의 주류 속에서는 라 페루즈의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는 이들에게 가능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학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필자는 라 페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활동이 있기 전 시대적 배경과 탐사준비를 서술하고 1785년 8월 1일 프랑스의 브레스트항을 출발하여 1788년 1월 24일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기까지 항해기록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우리나라 연안에 접근하여 조사하기 시작한 1787년 5월 22일부터 울릉도를 다출레섬(Isle Dagelet)이라고 이름을 붙여 해도에 기입한 후 5월 30일 일본을 향해 항해할 때까지의 기록을 상술하고자 한다.

라 페루즈의 세계일주 탐사반 일행은 1785년 8월에 항해를 시작해서 4년후인 1789년 8월경에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그들이 호주에 도착해서 1788년 2월 7일자로 씌어진 서신에는 예정보다 빨리 1788년 12월에 빠리에 도착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후 소식이 끊어져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2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돌아올 가망이 없자 1791년초에 라 페루즈 일행의 업적을 찬양하고 라 페루즈가 탐사중간보고로 기항할 때마다 보내 온 자료들을 정리하여 국고로 출판하도록 하였다. 밀레 뤼로(M. L. A. Milet-Mureau)에 의하여 정리된 탐사기록은 1797년 빠리에서 4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이듬 해에 런던에서도 영역본으로 출간되었다. 영역본은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에는 서문과 탐사치침 등이 207페이지이고 라 페루즈의 탐험기록은 출항에서부터 마닐라

2) 韓相復, “하멜 漂流記의 科學史的 意義,” 「과학과 기술」, 1980, 13 : 2, pp. 49-51; 13 : 3, pp. 44-48.

에 도착하여 동북아시아 탐사준비를 할 때까지 15장으로 나누어 290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 제 2권에는 동북아시아 탐사에서부터 호주 시드니의 보터니만(Botany Bay)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을 16장에서 26장에 225페이지에 걸쳐 기록하고 특별관측사항 및 중간기항지에서 발송된 서신을 217페이지, 항해일지 56페이지, 그리고 1787년 9월 30일 캄차카반도에서 라 베루즈 일행과 떨어져서 시베리아를 거쳐 육로로 빠리에 온 러시아 주재 프랑스 부영사 르세쁘(Lesseps)의 여행기 119페이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1>은 라 베루즈의 초상화와 1798년에 출판된 영문판의 제 1권 표지를 보여 준다.

2. 시대적 배경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유럽사람들에 의하여 새로운 항로가 발견되면서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가 무역 대상지가 됨으로써 활발한 해외경영력을 일으켜 유럽의 정치·경제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시기를 일컬어 발전시대(Age of Discovery)라고 하는데 이는 유럽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타당한 말이다.

발견(discovery)이라는 말이 지닌 뜻은 남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사물이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먼저 찾아 내는 것이다. 새로운 항로 개척에는 발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나 아메리카나 호주를 신대륙 발견으로 기술함은 유럽적인 편협성과 자만심에 기인한다. 유럽인의 지리적인 발견이라 함은 남극대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소개에 불과한 것이다.

유럽인들이 말하는 발견의 시대는 문명의 약육강식시대이다. 이 시대에 유럽문명은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자연의 힘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자연력의 지배하에 소극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 문명을 무참히 파괴하는 소행을 저질렀고 유럽문명의 부를 축적하였다. 남아메리카의 잉카문명 붕괴가 이 시기에 일어난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유럽의 자연지리학자들은 비록 순수한 입장에서 조사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예외 없이 조국의 번영과 해외식민지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왔다. 이렇게 해서 유럽문명은 해외의 다른 문명을 파괴하고 식민지화 하면서 더욱 부강하여졌으며 유럽국가 간에 경쟁적인 해외경영열이 일어났다.

이 경쟁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그들은 바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여 자연지리학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영국의 쿡(James Cook, 1728-1779)은 세차례에 걸친 세계일주 탐험항해로 조국의 국가이익과 함께 해양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는데 그의 두번째 항해가 더욱 유명하다. 1772년 7월부터 만 3년간 약 60,000마일을 항해하면서 그는 1774년 1월 30일에 남위 71도 10분까지 도달하였고, 당시에 개발된 항해용 기기를 이용하여 위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서 정밀한 해도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의 긴장된 탐사활동에서 승무원의 건강관리를 잘하여 112명 선원중 1명만 사망하는 기록을 낸 것도 획기적이었으며 해양학적인 조사도 행하였다.

이와같이 성공적인 두번째 항해에 이어 1776년 7월 12일에는 세번째 항해를 시작했는데,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르는 서북항로(Northwest Passage)의 발견이 주된 임무였다.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서북해안에 이르려면 대서양을 횡단하여 남아메리카의 끝에서 북상해야 하므로 직접 베링해협(Bering Strait)을 통과하여 북아메리카 서북해안에 이르는 항로를 발견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대단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쿡은 태평양을 북상하여 베링해에 이르렀고 북위 70도 44분까지 북상했으나 유빙 때문에 뜻을 못이루고 1779년 2월 14일 하와이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되었다. 그 후 조사원들은 1780년 10월 4일에 영국으로 귀환하였으나 쿡의 제 3차 세계일주 항해는 비극으로 끝났다.³⁾

유럽사람들은 쿡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가 풀지 못한 지리학상의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3) Villiers, A. *Captain James Cook*,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7, p. 307.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 하나는 과연 남극대륙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쿡은 그의 두 번째 항해에서 남극대륙 주위를 일주했지만 거기에 상륙하지 못했으며 남극대륙의 존재 가능성만을 강력하게 시사했을 뿐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대서양에서 북아메리카 서북해안에 이르는 지름길인 서북항로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서북항로의 개척은 식민지 정착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쿡의 사후에 영국의 경쟁 대상국이었던 프랑스에서는 쿡의 유업을 계승하여 서북항로를 개척하면서 당시에 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태평양 주변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관찰과 해양조사를 주로하는 세계일주 탐사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라 베루즈로 하여금 1785년에 4년 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게 하였다.

1785년은 우리나라의 正祖 9년에 해당하고 중국은 淸의 乾隆 50년이며 일본의 天明 5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사상에 젖어 사대교린의 외교정책과 자급자족적인 농본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實事求是의 실학운동이 일어나고 서양의 사상과 과학지식이 北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불행하게도 천주교 전도의 한 도구로서 들어왔으므로 우리나라에 내일을 약속하는 새로운 과학지식이 토착화하지 못했다.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파한 서양의 사상과 지식은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의 사신과 그 수행원에 의하여 도입되었는데 이 서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주목적은 서양의 사상이나 지식 자체를 전파하는 데 있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교도들을 천주교로 개종시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이나 문명의 이기는 이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학을 배우기 위해 천주교를 섬기게 된 셈이다. 서학과 천주교가 엄격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해 주는 쪽이나 전해받는 쪽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조선에서는 자연히 실학을 하는 사람과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동일시되었고 실학파의 지도급 인물들은 당시 정치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유학을 신봉하는 지배계급에 의하여 천주교가 탄압을 받게 되고 따라서 서학도 토착화될 수 없었으며 지배계급에서는 서양문명의 산물인 망원경이나 시계를 편리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신기한 장난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즉 개방적인 서양문명을 흡수하여 새로운 발전을 꾀하지 않고 폐쇄적인 동양문화 속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족하였으며 세계역사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 세계일주 탐사 준비

프랑스 정부에서는 세계일주 탐험항해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서 자연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을 추천시켜서 4년 동안의 항해계획을 세우고 두척의 프리깃함인 부술(Boussole)호와 아스트롤랩(Astrolabe)호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총지휘자로는 영불전쟁 동안 캐나다 동해안과 허드슨만에서 근무한 라 베루즈를 해군성의 까스트리(Castries)원수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육군사관학교 수학교수인 다즐레(Dagelet)와 몽주(Monge)를 천문학자로 임명하여 항해 중의 선박과, 새로 알려진 육지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케 하고 라마논(Lamanon)에게는 지질분야 또는 지구와 대기의 자연사 분야에 종사하게 했다. 물리학잡지의 편집자인 아베 몽제(Abbé Mongés)에게는 광물을 분석하고 시험하며 자연철학의 다른 분야들을 총감독하게 하였다. 약학박사인 마르띠니에르(Martiniere)는 식물분야의 조사책임 맡았으며 루이 16세의 정원사인 콜리농(Collignon)은 유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식물의 재배와 종자의 간수를 책임졌다. 숙질간의 두 프레보(Prevost)들은 자연사의 대상을물을 도화하도록 했으며 대박물학자이자 지구의 여러 다른 수확물을 분류하는 전문가 뒤프레네(Dufresne)은 총감독자가 되었다. 뒤셰 드 방시(Duché de Vancy)는 설명하기 힘든 풍경이나 고유의상 등을 그리라는 임무

를 맡았다.

탐험 항해의 총지휘자로 임명된 라 페루즈(Jean 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 Pérouse)는 1741년 8월 22일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알비(Albi) 근처에서 출생하여 1756년 11월 19일에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되었으며 1780년 4월 4일 함장이 되었고 캐나다 동해안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서북항로 탐험에 적임자였다. 그는 1785년 6월 26일 국왕 루이 16세로부터 항해명령과 함께 다섯가지의 탐사활동 지침서를 받고 7월 4일 브레스뜨에 도착하여 항해준비를 지휘하였다.

라 페루즈 자신은 부술호를 지휘하고 승선 인원을 119명으로 하였으며 아스트롤랩호는 랑글(Langle) 지휘하에 134명으로 편성하여 4년 간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겼다.

또한 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아베 메시에(Abbé Tessier)는 청수(fresh water)를 부패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푸르니(Fourni)는 나무의 관찰방법과 해수면(sea level) 결정방법을 알려 주었다. 드뤼(Dru)는 서로 다른 위도와 경도에서 자침의 변화에 주의할 것을 가늘이도록 지침서를 보내 오고 그 자신이 고안하여 제작한 복각기를 선사하였다. 영국의 뱅크경(Sir Joseph Bank)도 곡선장이 사용하던 복각기를 빌려 주어 성공적인 항해가 되도록 격려하였고 플뢰류(Fleurieu)는 스스로 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작성해 준은 물론 콜롬부스시대부터 여러 항해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항해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

국왕이 내려 준 다섯가지 탐사활동 지침은 첫번째가 항해일정으로 브레스뜨항을 떠나서 4년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예정 조사항로를 지시해 주었는데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에 따라 마카오나 廣東 또는 마닐라에 도착하게 되면 이곳이 여섯번째의 지정 집결지가 된다. 이곳에는 1787년말쯤에 도착될 것이다. 여기서 배를 수리하고 식량을 보급하면서 통상적으로 3월초에 불어 오는 남서계절풍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승무원들의 휴식이 더 필요하고 또 북방으로의 항해가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면 4월 1일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허용한다.

이 항구로부터 중국대륙과 대만을 분리해 놓은 해협을 통과하도록 진로를 잡아라. 근접거리에서 항상 남서풍이나 남풍을 타고 용이하게 조선의 남해안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하면서 조선의 서해안과 황해를 주의깊게 조사하라. 그 다음 조선반도의 동해안을 조사하고 진주어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달단해안과 맞은 편의 일본해안을 조사하라.”

두번째의 지시사항은 정치와 상업에 관계된 것으로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 9항에는 탐험 도중 중국과 일본에 머물러서 이들 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가족이 가장 쉽고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장사가 되는지 알아 보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프랑스에 무슨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알아 보도록 했으며 제 13항에서는 유럽국가와 廣東 간의 무역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 마카오에 머무는 동안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탐사를 위해 황해, 조선해안, 달단해안 및 방문예정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제 14항에서는 일본, 조선, 달단으로 둘러 싸인 바다에서 가끔 무리지어 나타나는 일본의 해적단에 대해서 꼭 알아 볼 것을 당부했고 조선과 달단해역을 조사할 때는 최대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군함기의 게양과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일절 금하여 대단히 융통성 없는 나라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하였다.

세번째의 것은 천문, 지리, 항해, 물리 기타의 자연사에 관계된 사항으로 4개 항목의 지침이 있다. 네번째 지시사항은 해외 여러나라의 원주민에 대한 것이며, 다섯번째는 승무원의 건강유지에 대한 사전 주의사항이다.

국왕은 탐사활동 지침 외에도 세계일주 탐사 항해를 하면서 54개소에 달하는 곳의 지리와 역사를 특별히 조사하라는 지시각서를 내렸으며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9개분야의 자연과학 조사사항을 메모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 물리와 화학분야의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 Milet - Mureau, L. A. ed., *The Voyage of La Pérous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1785, 1786, 1787 and 1788, with the Nautical Tables*, 1798, Vol. 1, pp. lvii-lviii.

물리분야 : 날씨가 허용하는 한 해안이나 바다에서 언제든지 자침의 일변화를 정확히 관측할 것, 적도 근처에서는 시간별로 기압을 정확히 관측할 것,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기압계가 1인치 높아지는가를 확인할 것, 대기의 낮은 부분에서 바람 부는 방향이 변화되는 높이와 그 방향의 진로를 작은 공기주머니를 써서 결정할 것, 지구의 여러 곳에서 해류의 정확한 세기를 조사할 것, 남극과 북극 부근의 극광을 관측하고 그 높이와 위도를 측정할 것, 회오리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물기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상황을 기록할 것, 수온을 여러곳에서 자주 조사하고 서로 다른 위도와 수심에서 바닷물의 염분량을 조사할 것, 유빙을 만나면 이를 조사하고 종류를 구별할 것, 바다표면에서 가끔 광채가 나는 현상을 될수록 근접거리에서 관찰하고 그 이유를 조사할 것.⁵⁾

화학분야 : 기체이론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대양 표층에 있는 공기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순수한지 또는 보다 더 활성적인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우리가 약간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제로 쓰이는 소금이 방문하는 나라의 호수에서 발견되는지 알아 볼 것, 광물알칼리를 보게 되면 어떤 물질과 혼합되어 있는가를 시험하고 해양염 알칼리화의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바다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할 것, 방문하게 되는 여러나라에서 물감들이는 색깔과 그것을 어디에서 추출해 내고 어떻게 응용하는가를 관찰할 것.⁶⁾

이상에서 단편적으로 살펴 본 것을 토대로 우리는 18세기 말엽 유럽대륙에서 바다에 대한 물리·화학적 연구과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 낼 수 있는데 될수록 많은 곳에서 수심별로 수온과 염분량을 조사하고 해류의 정확한 세기를 알아보도록 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자연지리적인 조사항목은 우리나라 주변만을 소개하는 데 그쳤는데 일본의 北海道와 사할린 주위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알류션열도와 쿠릴열도도 뚜렷이 조사하라고 강조하였다.

4. 세계일주 항해

탐험항해 준비를 마치고 과학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조사를 끝맺은 후 1785년 8월 1일 브레스프랑에서 4년 예정의 역사적인 장도에 올랐다. 대서양을 남하하면서 8월 19일에 산타 크루즈(Santa Cruz)에 도착했다가 8월 30일 출항해서 11월 6일 남아메리카 동편에 있는 세인트 캐더린(St. Catharine)에 이르러 예정된 조사를 마치고 이듬해인 1786년 2월 6일에는 남위 60도38분까지 남하했다가 태평양으로 대륙을 따라 북상하여 2월 23일 남아메리카의 서편에 있는 콘셉션 베이(Conception Bay)에 도착하였다. 4월 9일에 남태평양의 이스터섬(Easter Island)을 조사한 후 항로를 북서쪽으로 잡아 5월 29일에 영국의 쿡이 살해당한 하와이에 이르렀고 다시 북북동진하여 6월 26일에는 북위 59도 41분에 이른 후 북아메리카 대륙을 따라 남하하다가 7월 3일 라 베루즈는 북위 58도 38분에 위치한 항구 이름을 Port des Français(Frenchmen's Port)라고 부르고 이곳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9월 15일에는 몬테리(Monterey)에 도착하였다. 9월 24일에 이곳을 출항하여 계속 서쪽으로 항로를 잡아 1787년 1월 2일에 마카오(Macao)에 도착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마닐라(Manila)에 이르러 동북아시아 조사준비와 함께 휴식을 취했다. 4월 10일 마닐라를 출항해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항로가 위험하고 기상상태가 나빠서 4월 29일 지침서대로의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대만 동쪽으로 우회하여 북상하면서 황해와 조선 서해안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해상 상태가 나빠서 5월 20일에는 방향을 북동으로 잡아 조선의 남동해안을 살피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한 후 동해(Orient Sea)에 이르러 1787년 5월 29일에 울릉도를 보고 해도에 다출레섬(Isle Dagelet)이라고 명명하여 기입한 다음 일본을 향해 동진하다가 6월 7일에는 연해주 쪽으로 가기

5) *Ibid.*, p. XCii.

6) *Ibid.*, pp. XCii-XCiii.

위해 항로를 북서쪽으로 돌렸다. 6월 13일부터는 연해주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7월 26일에 북위 51도 44분까지 이른 후 사할린 서부 연안을 타고 남하하여 8월 12일에 北海道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해협(라 페루즈 해협)을 통과하여 오후즈크해로 들어왔으며 쿠릴열도를 조사한 다음 9월 7일에 캄카반도에 도착하였다. 9월 30일에는 아스트롤랩호에 승선했던 러시아주재 부영사 르세쁘가 시베리아를 거쳐 육로로 빠리에 가기 위하여 내리고 일행은 남태평양으로 향했다. 12월 9일에 사모아제도에 도착하였는데 사흘 후인 12일에 모나섬(Island of Mauna)에서 원주민과 충돌하여 아스트롤랩호 함장인 랑글과 부술호에 승선했던 박물학자 라마농 등 12명이 사망하고 많은 승무원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후 항로를 남서쪽으로 돌려 1788년 1월 24일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보터니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2월 7일 라 페루즈가 보낸 서한들에 의하면 3월 15일에 보터니만을 출항하여 지침서대로 뉴 케일도니아(New Caledonia) 남부를 탐사한 후 7월말경 호주와 뉴 기니 사이 수로를 조사하고 9월에 호주 북부에 있는 카프타리아만(Gulf of Carpentaria)에서 조사를 마친 후 12월 빠리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쿡의 제3차 세계일주 항해보다도 더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고 프랑스의 세계일주 탐험항해는 태평양 탐사로써 불운한 끝을 맺게 되었다. 부술호와 아스트롤랩호의 난파된 잔해는 1826-1827년 간에 딜런(Peter Dillon)선장에 의하여 남태평양의 산타 크루스제도(Santa Cruz Is.)에 있는 바니코로(Vanikoro) 암초에서 발견되었다.⁷⁾

라 페루즈의 항해기록을 정리한 밀레 뒤로는 프랑스에 도착된 수많은 원도면(Original Drawing)들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당황했으며 칠레로부터 온 식물 하나만을 방띠나(Ventinat)의 설명을 붙여 시험삼아 발표하였다. 승선조사요원이었던 박물학자 라마농이 북위 1도에서 남위 1도 사이의 적도해역에서 조사한 해양기상관측은 다행히 프랑스에 도착되어 수록할 수 있었는데 1785년 9월 28일 오전 4시부터 10월 1일 오전 6시까지 매시간 조사된 기상자료도 첨부되어 있다. 항해일지에는 매일 정오의 선박위치와, 아침 또는 저녁에 측정한 자침의 편차, 레오뮴르 온도계(Réaumur's Thermometer)로 측정한 기온, 일출시에 측정한 기압 및 바람 기상상태 복각계 관측결과와 수심 기타 중요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 이외의 중요한 관측결과나 조사자료는 라 페루즈 일행이 불운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지침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 18세기 말엽에는 관측기 기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준비했던 기기가 파손되면 관측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5. 우리나라 근해에서의 탐사활동

라 페루즈 일행은 마닐라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1787년 4월 10일 동북아시아 탐사항해를 시작했으나 날씨가 나쁘고 게다가 유속이 세어서 지침서대로 대만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만 동쪽을 돌아서 계속 북상하여 우리나라 서해안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지금의 동지나해를 북상해 오는 보름 동안 날씨는 좋았지만 유속이 예상외로 강하여 불안감을 가져오다가 5월 20일에는 기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계획을 바꾸어서 항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었다. 5월 22일에 제주도에 접근하여 섬의 최남단 위치를 북위 33도 14분, 빠리 기점 동경 124도 15분으로 측정하였다. 다즐레가 항해준비기간인 1785년 7월에 측정한 빠리와 그리니지 간 경도 차이는 2도 20분⁸⁾이었으므로 현재 상용되는 그리니지 기점 경도로는 동경 126도 35분에 해당한다. 해안에서 약 10km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주도의 남동부 해안을 따라 약 60km의 해안을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조사했고 베르니제(Bernizet)는 해안선의 초벌 그림을 작성했다. 라 페루즈가 제주도를 표현한 글을 보면,

7) *Encyclopaedia Britannica*. 1970, Vol. 13, p. 716.

8) Milet - Mureau, L. A. ed., *The Voyage of La Pérous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1785, 1786, 1787, and 1788, with the Nautical Tables*, Vol. 1, 1798, p. XXii.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찾아낸다는 것은 꼭 희귀하다. 산봉우리는 6,000피트 정도이고 거리는 18-20 리그로 퍼져 있으며 섬 중앙에 솟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산록은 완만하게 바다로 뻗어 있고 거기에는 마치 계단식교실 같은 모습으로 인가가 있다. 토지는 아주 고지대까지 경작하는 것 같이 보였다. 우리는 작은 평야지대의 분할이 섬의 조밀한 인구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망원경을 통하여 느꼈다.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곡식을 가꾸어서 다양한 색조가 아주 그럴듯한 광경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섬은 모든 외방인과 어떤 통신도 금지된 나라에 속해 있었고 그 나라에서는 그들의 해안에 좌초된 불행한 사람들을 노예로 고용하고 있다. 스페로우 호크(Sparrow Hawk)호에 탔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18년 동안 자주 태형을 받으며 프로생활을 하다가 배로 일본으로 탈출한 다음 바타비아(Batavia)를 거쳐 암스터담으로 왔다. 우리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해안에 보트를 보낼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두척의 작은 배가 해안에서 떠나오는 것을 관찰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1리그 이내로 접근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감시하고 조선의 해안에 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했다.⁹⁾

이상이 제주도를 자연지리학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유럽사람들에게 알리는 최초의 문장이 되었다. 그들은 한라산의 높이를 1,830m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인용된 문장에 나오는 리그(League)는 거리의 단위로 해상에서는 5.5km이고 육상에서는 4.8km이지만 라 베루즈 일행이 측정한 것은 개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육상이나 해상의 구별 없이 5km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653년 8월 제주도에 도착한 하멜은 그의 표류기에서 처음 포착한 곳의 위도만 알렸을 뿐이고 이상한 정도로 제주도의 자연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인용문에 하멜 일행이 18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고 그들은 13년 동안(1653-1666) 우리나라에 억류되어 있었다.

제주도를 조사하면서 본토 쪽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침로를 북북동으로 유지했으며 매시간 수심을 재었는데 60길에서 70길(100m~120m)이었다. 이들은 5월 23일에도 계속 북북동진하였는데 오전 11시경에 켄 수심은 30~35길(50m~60m)이고 해저는 펄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5월 25일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는 매 30분마다 측심을 하였다. 제주도에서 대한해협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섬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이들의 해도에 기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라 베루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섬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출판한 일본지도 또는 조선지도에 의해 우리 해도에 기입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은 육상여행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들 섬을 정성스레 그려 넣었으며 北京에서 만들어진 정밀한 관측과 비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오차는 대단히 작다. 우리는 그들이 아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지리학에 기본적인 공헌을 하여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하였고 거의 사실에 가깝도록 해도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제 항해자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육로로 여행했기 때문에 표시될 수 없었던 바다에 관한 사항들만 알면 된다.¹⁰⁾

<그림-2>는 라 베루즈가 사용하면서 조사된 해안선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한 해도에다가 탐험선의 항적과 날짜, 그리고 조사된 수심을 길(fathom) 단위로 적어 놓은 것인데 1길은 1.8m에 해당한다.

부산과 대마도의 중간 해역에서 이들은 일본쪽 해안보다 우리나라 해안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어 동해안 남부쪽으로 와서 10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였는데 5월 26일 정오경에는 울산 앞바다에 이르렀고 저녁에 장기갑까지 북상하면서 해안선을 스케치하였다. 부산 근해에서 울산쪽으로 북상하면서 라 베루즈가 우리나라를 표현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9) Ibid., Vol. 2, p. 15.

10) Ibid.,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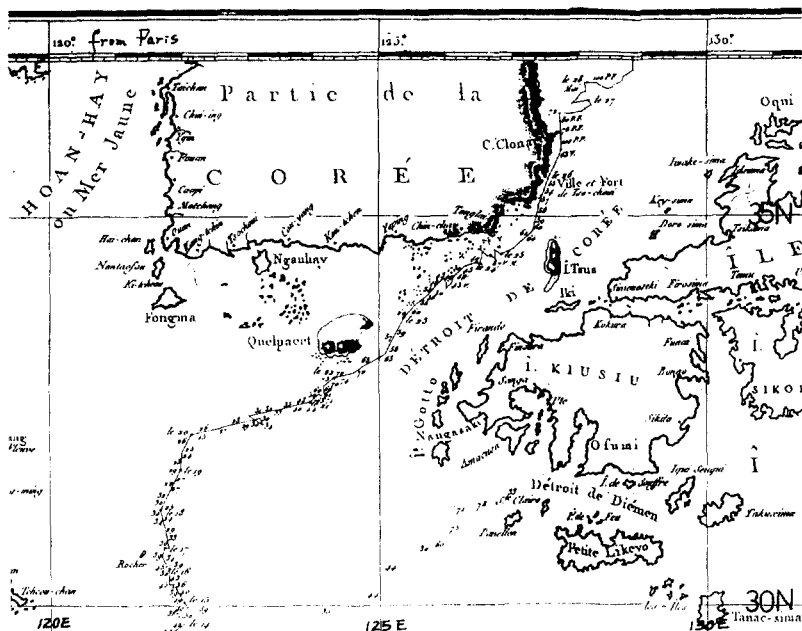


그림 2. 1787년 5월 한국해역 남부의 항적과 수심도

우리는 산꼭대기에 유럽의 항구에 있는 것과 같은 보루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아마도 주로 일본에 대항해서 조선사람들이 방어 목적으로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해안선 부근은 항해하기에 매우 좋고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안에서 3리그 떨어진 곳의 수심은 60길(약 100m)이고 해저는 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은 산이 많고 불모지처럼 보인다. 어떤 산골짜기에서는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았고 토양은 경작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주택들은 엄청나게 많았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10여척의 작은 배들을 보았는데 중국배와 다른점이 없어 보였고 돛은 거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배의 출현이 그들에게 아무런 우려도 나타냄이 없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들은 육지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들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두려움이나 위험감을 주기 전에 쉽사리 상륙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쪽으로 오는 모험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관심하게 그들의 항해를 계속해 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현상들은 새롭긴 하지만 그들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1시경에 나는 우리를 정찰하러 오는 두척의 배는 보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1리그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여 두시간 동안이나 추적하다가 오전에 떠나왔던 항구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해안에 왔다는 경고를 불러일으켰음이 분명한데, 오후에는 육지의 각 산봉우리에서 봉화불이 올려지는 것을 관측하였다.¹¹⁾

5월 26일에는 날씨가 좋아서 위에 인용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동해남부 해안선을 묘사하면서 150km 이상의 해안을 조사하고 영일만 입구인 장기갑 근처까지 북상했는데 여기서 이들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이변을 체험하였다. 맑고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압계의 수은주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상식밖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여기며 계속 조사를활동을 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강한 동풍이 불어 와서 이들은 배가 영일만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바다 밖으로 멀리 나가야 했다. 구름까지도 이런 급격한 기상이변을 알려 주지 못했지만 마스트 위에 있는 감시당직이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현상을 알려 왔다. 갑자기

11) Ibid., pp. 17-18.

후덥지근하고 30초 간격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갑판 위에 있던 온도계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온을 측정하니 20도가 되다가 얼마 후에 가서 갑판에서처럼 14도를 나타내는 현상을 관측했던 것이다. 5월 27일에는 다시 해안으로 15km 가량 접근하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해안선을 조사하고 영일만북쪽에서는 해안선이 북북서방향으로 뻗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바람은 계속 세차게 불었다. 5월 28일에는 일본을 향해서 선수를 동쪽으로 돌렸는데 북북동쪽에 해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섬을 다즐레가 처음 발견하게 되어 다시 항로를 북쪽으로 정하고 이 섬 즉 울릉도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으나 강풍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튿날인 1787년 5월 29일 이 섬 주변을 조사하고 다즐레섬(Isle Dagelet)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도에 기입한 다음 5월 30일에는 일본 연안 조사를 위해 동진을 계속하였다. 라 베루즈가 기술한 울릉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동쪽으로 향해 항해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이윽고 나는 조선해안에서 북북동쪽으로 약 20리그 떨어진 곳에 어떤 해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섬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는 이 섬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으나 강풍의 중심권에 있어서 불가능했다. 다행히 밤 동안에 바람이 변해서 이튿날 새벽 이 섬을 정찰하기 위해 키를 잡았다. 나는 이 섬을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다즐레섬(Isle Dagelet)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섬은 주위가 간신히 3리그가 넘었다. 이 섬 가까이 접근하여 수심측정을 하지 않고 1마일의 거리를 두어 가면서 거의 일주하였다. 그리고는 보트를 내렸다. 부땡(Boutin)에게 보트를 지휘하여 가능한대로 해안의 수심을 측량하도록 명했다. 그는 20 패덤 길이의 측심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섬에서 200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쇄파대에서도 바닥이 닿지 않았다. 이 섬의 동북쪽 위치는 북위 37도 25분, 빠리 기점 동경 129도 2분이다. 섬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랐고 꼭대기에서 물이 닿는 데까지 좋은 수목으로 뒤덮여 있었다. 벽처럼 거의 수직으로 노출된 암벽이, 상륙하기에 가능한 일곱곳의 모래로 된 조그만 만(Bay)을 제외하고는 섬 주위를 완전하게 둘러쌌다. 이들 조그만 만에서 배 짓는 틀 위에 있는 몇척의 배를 파악하였는데 중국배의 형태와 똑같았다. 우리배가 대포의 사정거리 이내로 근접하자 인부들이 놀라서 배 짓는 곳에서 약 50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숲속으로 숨어버렸다. 거기에는 오직 몇채의 허술한 오두막 외에는 부락이나 주위에 경작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곳은 조선의 배짓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 이 섬에서 조선까지는 20리그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여름철에 이리로 와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대륙에 팔 것이다. 이 생각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의 서쪽으로 회항해 오자 그때까지 우리배를 아직 보지 못했던 다른 조선소의 일꾼들이 두셋의 완전경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다가 우리를 보고는 놀라서 모두 숲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또 목격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친절을 보여 줌으로써 확신시키려고 배가 정박할 곳을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거센 해류가 우리 배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 게다가 밤이 다가오고 바람부는 쪽으로 배가 표류하여 나는 부땡의 보트와 합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가 섬에 상륙하려는 때에 다시 모선으로 오라고 신호하였다. 나는 아스트롤랩호를 향해 침로를 바꿨는데 해류가 이 배를 꽤나 서쪽으로 표류시켰다. 우리는 여기서 조용한 밤을 보냈는데 다즐레섬의 산들이 해풍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¹²⁾

라 베루즈의 기술과 같이 울릉도는 당시까지 전혀 유럽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 세계의 해도에는 울릉도의 명칭이 1787년 5월 29일 그가 명명한다고 다즐레섬이라고 나타나게 되어 라 베루즈는 울릉도를 서양에 최초로 소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울릉도 주변에서 측심을 하지 않은 것은 수심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며 부땡이 상륙했던 해안에서 200야드 밖에 안되는 곳에서도 수심이 40m 이상이 되었다.

라 베루즈는 울릉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만 여름철에 본토에서 배 짓는 목공들이 임시로 와서 배를 지어 가지고 다시 본토에 이를 파는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공도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일행이 우리나라에 온 사실이 조선정부의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

12) Ibid., pp. 19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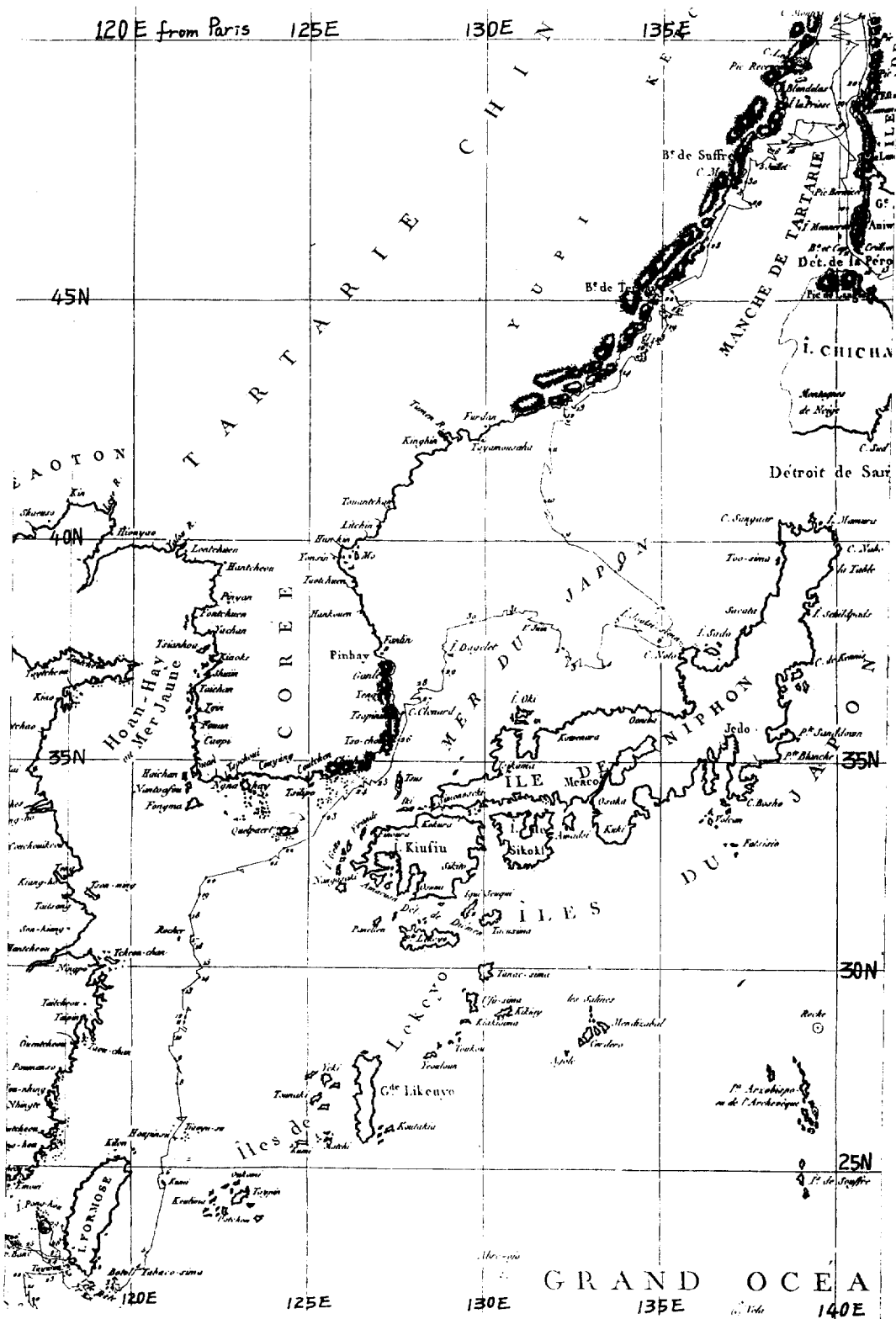


그림 3. 1787년 라 베루즈의 한국해역 항적도

느곳에도 상륙하여 주민들과 교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그림-3>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조사한 해역의 항적도를 나타낸다.

6. 맺는 말

프랑스 정부에서는 라 페루즈로 하여금 1785년부터 4년 간에 이르는 세계일주 탐사항해를 하도록 했으나 불행히도 라 페루즈 일행은 1788년 2월 이후 실종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서 세계일주 항해기록은 깨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태평양지역에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연지리학적 조사를 통하여 유럽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역의 소개에 공헌한 바가 크다.

라 페루즈 일행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최초로 수심측량을 기록해 놓았고 제주도의 남동해안과 대한반도의 남동해안을 스케치하였으며 이들의 항로에서 해저상태도 조사하였고 기온, 기압 및 기상상태를 기록했으며 장기갑 부근에서 체험한 기상이변을 상세히 전했다. 그리고 울릉도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공로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울릉도는 다줄레섬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었다.

라 페루즈는 제주도를 비교적 비옥한 토지로 생각하고 본토를 불모지처럼 잘못 관찰하기는 했어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찰기록으로는 하멜 이후 100여년만에 처음이라는 데 뜻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일이 없으므로 다만 항해하면서 자연지리학적인 관찰만을 기록했지만 항해자들에게 꽤 유익한 사실들을 알렸다.